

서울특별시

외식업소의 영양정보표시제 확대 실시

서울시는 서울시영양사회와 함께 바른 식생활 실천과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로 시민들에게 식품영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합리적인 식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올해도 식품영양정보표시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외식업소(자치구별 자랑스러운 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권역별 대형백화점 식당가 등)의 대표 메뉴를 선정 후 영양전문가인 영양사들이 업소를 방문하여 직접 영양조사 후 열량 및 영양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영양정보표시는 음식별 열량 및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스탠딩 냅킨꽂이, 메뉴판, 스티커 등의 홍보물로 제공되어 외식업소에서 시민들이 영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홍보물 외에도 웹 사이트, 모바일 등을 통해 제공되는 영양정보는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바른 식생활 습관을 유도 소비자 스스로 음식문화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경기도

양주시, 미생물제제로 악취제거에 도전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9월초부터 연말까지 미생물제제 30톤을 은현면 하패리의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특별 배송팀을 자체 구성해 주 3회 축산농가 30호를 대상으로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

악취방지용 미생물제를 공급받은 농가는 아침, 저녁으로 2회 분무기로 축사 내외부에 살포하고 분뇨저장소에는 원액을 통째로 넣어 사용하면 된다.

작용기작으로는 광합성균과 고초균이 혼합된 균을 축사바닥, 분뇨탱크, 축분장 등을 살포하면 악취의 원인인 황화수소, 암모니아, 유해 유기산 등과 반응하여 유해가스를 제거하게 된다.

또한 미생물제제는 악취제거 뿐만 아니라 먹이를 통해 흡수하게 되면 가축의 소화율을 높여, 1석 2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 축산농가에 인기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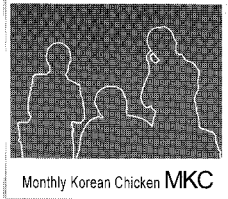
한편, 센터에서는 현재 도시민의 악취 민원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방역차량 2대를 활용하여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일 2회에 걸쳐 미생물제제와 악취탈취제를 살포하고 있으며, 자돈사 농가에 어린돼지 영양식 요구르트 미생물 공급 및 젖소, 닭의 소화제 액상 혼합미생물 무상 공급 등으로 악취제거에 기여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산성 증대와 악취제거를 하는 미생물제제에 대해 생산량을 연간 150톤에서 두 배로 늘려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전량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하반기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광주시는 오는 10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자치구와 함께 하반기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업소는 상반기에 조사한 위탁급식소를 제외한 937곳으로 뷔페 24곳, 위탁급식소 107곳, 집단급식소 806곳이다.



원산지표시는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해야 하며 1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은 메뉴판, 게시판, 풋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표시도 할 수 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쇠고기 원산지 또는 식육의 종류 및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등을 미표시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 품목별 표시 방법은 구이용·탕용·찜용 및 튀김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되는 음식의 경우 주 재료인 돼지고기·닭고기가 원산지표시 대상이다.

집단급식소는 반찬에도 표시해야 하며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법 관련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중대형 음식점은 물론 소형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7월 8일 이후 음식점 원산지를 단속한 결과 쇠고기 허위표시 25건, 미표시 14건, 쌀 미표시 2건 등을 적발했다.

강원도

춘천 명동 닭갈비골목 관광지로 조성
강원 춘천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촌 중 하나인 명동 닭갈비 골목을 먹거리 관광코스로 조성

한다.
지난 9월 7일 시에 따르면 춘천~서울고속도로 개통 이후 닭갈비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는 닭갈비촌 중 하나인 명동닭갈비골목을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기 위해 2억8000만원을 들여 간판정비 및 조형물 설치 사업을 벌인다.

앞서 골목 내 25개 업소 간판을 닭갈비와 도시 특성에 맞는 디자인으로 교체한 데 이어 골목 곳곳에 조형물과 빈 벽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명동과 브라운5번가 입구 등 닭갈비 골목으로 통하는 길목 3곳에 조형물과 지역 문화, 축제 정보를 담은 문화홍보판이 설치된다.

또 골목 중간에 닭갈비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휴게공간이 마련되고 건물 빈 벽면들은 나무소재 등으로 마감된다.

시 관계자는 “10월말쯤 닭갈비골목은 새로운 관광코스로 변신하게 될 것”이라며 “닭갈비 골목 환경이 크게 개선돼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특색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태안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총력
태안군이 신종인플루엔자와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결합으로 인한 변종 바이러스 출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태안군은 최근 확진환자가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신종플루가 확산 일로에 놓이면서 여기에 시까지



시도소식

가세돼 변종 바이러스라도 출현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가축 사육농가에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가축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닭과 오리는 물론 꿩, 타조, 메추리 등의 가금류도 대상에 포함시켜 면밀한 예찰 활동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군은 사육농가를 방문해 ▲소독시설 설치여부 ▲소독 실시여부 ▲소독기록부 작성여부 등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중국, 몽골 등 인접국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다 철새 이동시기까지 도래해 발병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각 농가마다 각별한 방역을 추진해주고, 이상가축과 의심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남도

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 고수 ‘시동’

경상남도가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 예찰활동 강화에 나섰다.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는 지난해 4월 발생, 가금류 사육농가와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AI 재발방지를 위해 9월부터 하반기 AI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축산진흥연구소는 또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한 신종인플루엔자(H1N1)와 관련해 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양돈장과 종돈장 등을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8월 15일 국내 청정국 지위회복 이후 사육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 등으로 도내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 몽골, 베트남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AI 바이러스 국내유입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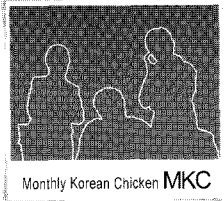
이에 따라 경남축산진흥연구소는 AI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하반기 모니터링 검사 때 닭·오리 등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축산진흥연구소에 따르면 8월말까지 종계장 및 농가사육 닭·오리 256개소 8,506건에 대한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수 이상 종·육용오리 8,216건, 철새도래지 및 양산 AI 발생지역 4개소 500건, 재래시장 내 판매 가금류와 관상·전시용 조류 58개소 1,570건 등 총 165개소 1만286건에 대한 항원검사 결과 전체 음성으로 청정화를 재확인했다.

도축산진흥연구소는 특히 하반기부터 메추리, 꿩 등 가금류로 검사대상을 확대해 1,360여 건의 항원·항체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친환경농법 사육오리에 대한 항원검사로 국내 바이러스 유입여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도축산진흥연구소는 올해 말까지 1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생물안전3등급(BL-3급)의 국제수준 신종인플루엔자 검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의령군, 축산농가 사료비 29억원 지원

의령군은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으로 상반기에 이어 100호에 29억원을 배정 지원한다고 지난 9월 20일 밝혔다.

축종별 두당 지원기준은 한육우, 낙농 120만원, 양돈 10만원, 양계 650원, 오리는 3천원으로 사육두수 기준으로 용자금을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연 1% 저리로 소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닭 등은 2년 균분상환으로 지원된다.

구매사료는 배합사료, 섬유질 가공사료, 조사료이고 양봉농가는 꿀벌사료 및 꿀벌 기능성 사료 구매시만 지원된다.

사료 구매자금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기존에 지원받은 농가의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금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하며 2008년 시관련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정된 농가는 세금계산서 등 사료구매실적 증빙 자료를 첨부해 대출 취급기관에 자료 제출시마다 분할 또는 합산하여 용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용자금을 올해 연말까지 활용하지 않을 시는 내년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창녕군, 가축 무료순회진료 실시

창녕군은 지난 9월 4일 영세 가축농가가 많은 길곡면과 부곡면을 대상으로 무료 가축순회 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군이 고령의 노약자 및 영세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무료로 가축순회진료를 실시



하고 가축별 사양관리를 지도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다.

가축무료순회 봉사활동은 공수의사 8명과 담당 공무원 6명이 참여한 가운데 2개면 134농가(한우 344두, 돼지 2두, 닭 938수, 기타 2두)를 대상으로 진료활동을 펼쳤다.

군 관계자는 브루셀라,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

상주시, 악성가축전염병 소독체제 '돌입'

상주시는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추진의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 전염병 감염방지를 위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특히 하반기 소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단을 동원, 집중소



시·도 소식

독을 실시하는 등 9월부터 12월까지(셋째주 수요일) 4회 공동방제단이 운영이 되며, 소독약품은 전량 시에서 읍·면·동으로 공급했다.

상주시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 대상은 3,850호이며 한육우·젓소·사슴·염소는 10두 미만, 돼지는 500두 미만, 닭 3,000수 미만, 오리는 전농가가 해당된다.

아울러 소규모 농가를 제외한 전업농가(1,347호)의 자율방역소독을 위해 소독약품 2,220kg을 지원하여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양축농가 스스로의 차단방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해외 여행시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발생국 여행을 자제토록 하고 있으며, 귀국시 축산물을 휴대치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상주시는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으며, 양축농가의 방역의식 고취와 방역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도·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라남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체계 강화

전라남도는 최근 철새 이동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데다 중국, 몽골, 베트남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전예찰 및 모니터링 검사, 차단방역 등 상시방역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9월 10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4월 전북을 시작으로 영암·신북 종계농장을 포함해 전국 19개 시·군·구에서 33건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후 농가 및 방역기관의 철저한 차단방역활동으로 지난해 8월 15일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고 이후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AI 방역이 연중상시 방역대책으로 전환돼 상시에찰을 추진해온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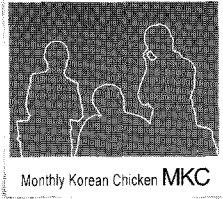
올 상반기 닭, 오리사육농가에 대한 전화 및 임상예찰 9만9천건, 종오리 및 종계에 대한 모니터링(혈액·분변검사) 400개소 1만8천110건, 재래시장 34개소 168건, 가축 및 사료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및 점검 85개소 1만6천244대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추진,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청정화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유입 가능한 경로별 예찰검사를 실시해 AI 바이러스 유입여부를 조기에 검색해 나갈 계획이다.

AI 의심가축 발견시 초동방역팀을 현지에 급파해 최종 확진판정 때까지 이동제한 및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추진토록 해 전파 및 확산방지 등 방역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상시 모니터링검사 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확인 및 국내 유입시 즉각적인 방역실시를 위해 올해 말까지 1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국제수준(생물안전등급, BL-3급)의 인플루엔자 검사 시설을 축산기술연구소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종플루 여파로 취소된 AI방역교육 대신 '닭, 오리 등 가금류와 돼지 사육농가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농장 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소독 등 차단방역 활동 강화'라는 내용의 전단지 배포, "농장 종사자는 해외여행을 가급적 자제



하고 인플루엔자 모니터링 검사를 위해 농장 방문 시 시료 채취 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또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한 신종인플루엔자A(H1N1)와 관련해 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도내 양돈장 268개소 4천 556마리, 종돈장 19개소 323마리를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A(H1N1)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97호 1천649마리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전라북도

AI 대비 핥, 타조까지 예찰 확대

전라북도는 철새가 이동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닭과 오리뿐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꿩이나 타조 등도 예찰 대상에 포함한다고 지난 9월 3일 밝혔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유입 방지와 차단을 위해 지난 9월 하순부터 꿩, 타조, 메추리 등의 가금류도 대상에 포함해 사육 상태를 살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10월까지 담당공무원과 생산농가, 유통·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방역교육을 하고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AI 항체 검사를 하기로 했다.

또 도내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금강, 만경강 등지와 지난해 고병원성 AI가 발병해 집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김제, 익산, 정읍, 순창 일대의 소하천을 중심으로 철새 분변검사를 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광범위한 사전 방역활동을 통해 AI 재발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행정기관의 방역

대책을 충실히 따라주고 이상 증상이 있는 조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실시

제주시는 오는 10월 5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닭·오리·철새·야생조류에 대한 광범위한 예찰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을 조류인플루엔자·돼지열병으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일제소독의 날' 추가 운영과 가축사료 반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림항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상주직원을 배치키로 했다.

또 양축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농장 출입차량 및 사람 등에 대한 통제 강화 홍보 및 축산사업장에 대한 현장예찰 중심의 방역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금전염병 청정화를 위한 일제 채혈 기간동안 가금전반에 대한 예찰과 소독실시 지도는 물론 텃새 침입방지 시설 등 현장방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 구입한 긴급 차단방역소독기 35세트, 소독약 520개(4,260ℓ), 개인방호복 3,000벌, 긴급방역용구 등을 점검, 초동방역 능력 강화와 신속대응 및 조기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